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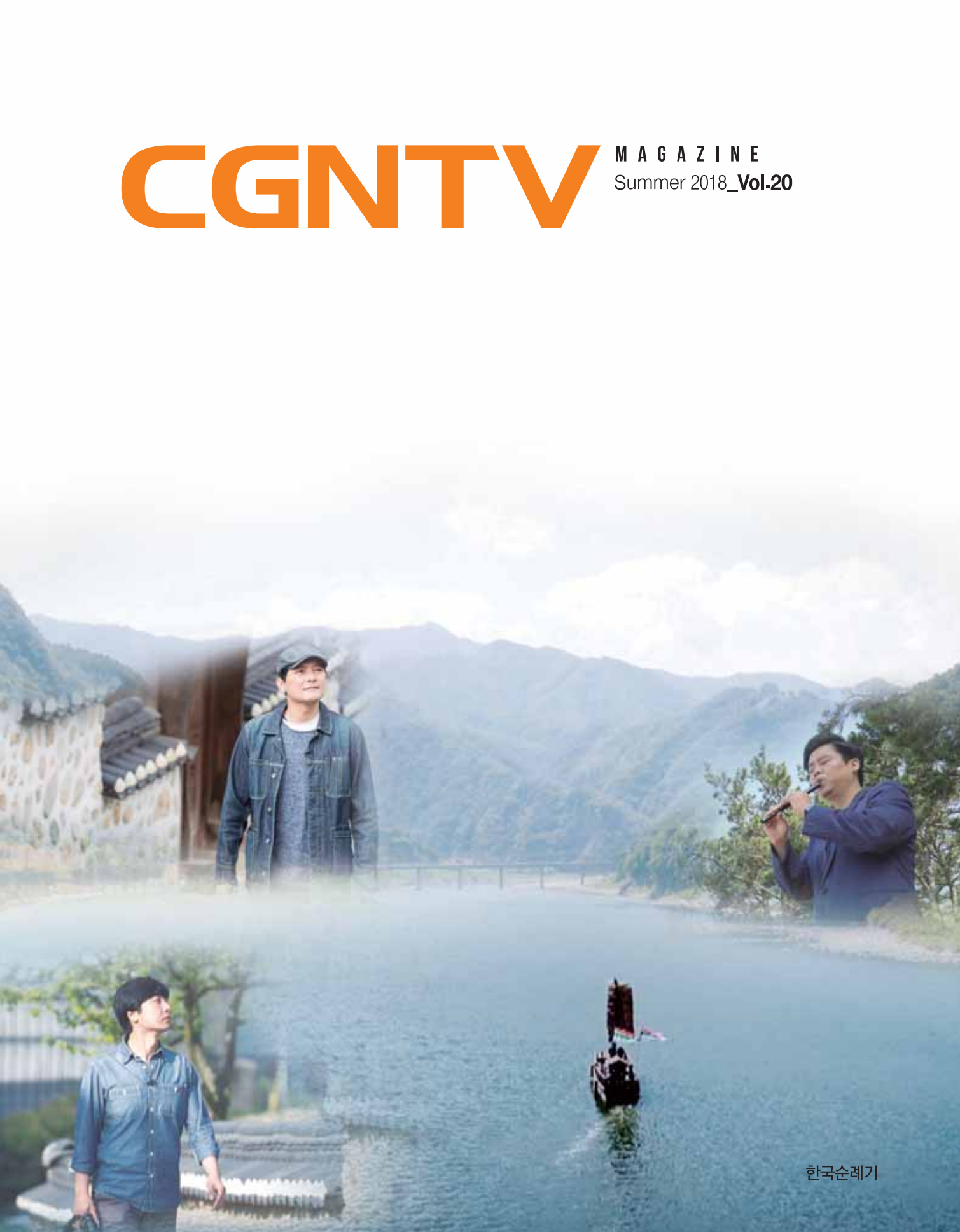
CGNTV MAGAZINE

Summer 2018_Vol.20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04384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목차

한 영혼을 위해

한국순례기

- 2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순례기>
- 6 사명감으로 시작한 제작진의 순례기

나침반 플러스 시즌2 - 믿음

- 8 출연자 인터뷰 - 개그맨 이홍렬

한 영혼과 CGNTV 콘텐츠

- 12 제2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자 인터뷰 및 수상작

당신의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시청 큐레이션

- 16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CGNTV 콘텐츠로 전하는 소중한 마음

선교지에 있는 당신에게

더 멀리

- 18 <말씀강해 & 예배>, <나침반 바이블>

예수를 모르는 당신에게

- 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내일의 꿈, 어린이들에게

더 가까이

- 22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이 좋아요>

교회와 떨어진 내 가족, 내 친구에게

- 24 인터뷰 - <KNOCK> 황지수 PD

해외뉴스 / 국내뉴스

News

- 27 해외
- 30 국내
- 32 편성표
- 34 에필로그 - 열린교회 김남준 담임목사
- 35 후원안내



COVER STORY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을 찾아서...
CGNTV<한국순례기>의 여정이 시작됐다.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8년 7월 1일(통권 제20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정원이, 어대준, 김 란, 추정현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추정현, 여준원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순례기>

한국교회 첫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보았는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울곧게 걸어갔던 사람들.

CGNTV <한국순례기>가 그들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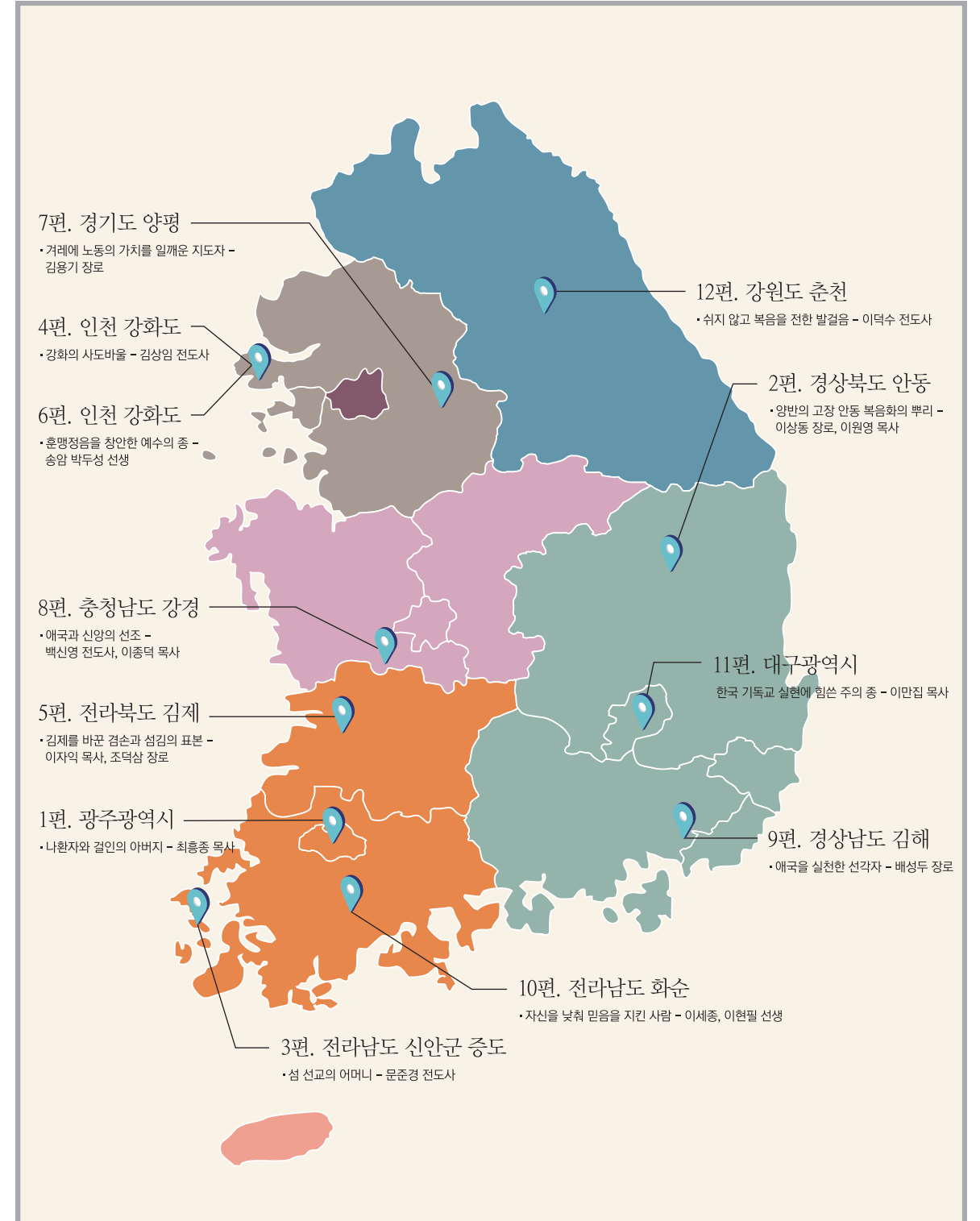
배우 서태화, 사진작가 이요셉,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각각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따라 그 길을 안내한다.

오늘을 걸어 의미 있는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 6월 1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12편에 걸쳐 펼쳐지는 <한국순례기>.

올 여름 새로운 도전과 꿈을 선사할 이 순례에 앞서, 동행할 이들을 위한 주요 여정을 소개한다.



'가자형 교회' 전북 김제 금산교회 (5편 중에서)



1. 총 12회에 걸쳐 한국교회 선조들을 조명하는 <한국순례기>
2. 문준경 전도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3. 금산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요셉 작가
4. <한국순례기>의 문을 연 배우 서태화



<한국순례기>가 찾아가는 순례지는 국내 총 열두 곳이다. 광주광역시로 시작으로 경북 안동, 전남 신안 증도, 인천 강화, 전북 김제, 경기, 충남 강경 등을 거쳐 마지막 강원 춘천까지 한반도 전역을 고르게 순례하는 여정이었다. 지리적, 문화적 환경을 뛰어넘어 도서산간지역을 망라해 신앙의 유산을 남긴 우리 민족의 첫 사람들이 있었다. 예비된 옥토들이었을까. 그들은 훌쩍처럼 날아온 복된 소식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한국순례기>가 길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이 바로 그들의 자취, 그들의 이야기였다. 그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광주광역시. 나환자와 결인의 아버지로 불린 '오방' 최홍중 목사의 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광주 양림동은 국내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곳으로, 지역 곳곳에 근대 역사 문화가 잘 보존돼 있는 곳이다. 최홍중 목사는 당시 유진 벨 선교사의 집에 드나들다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에 감동받아 복음을 받아들였다. 광주 첫 교인이자 첫 장로, 첫 목사가 된 인물이다. 그는

환자를 스스럼없이 보살피는 포사이드(W. H. Forsythe) 선교사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후, 평생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살았다. 노년기였던 1935년,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기에는, 산 중에 '오방수련원'을 짓고 세상을 떠나 약자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 '오방'은 당시 그가 새롭게 바꾼 그의 '호'로, 가정, 사회, 경제, 정치, 종교 등 다섯 가지 얽매임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최홍중 목사의 장례는 광주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광주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그의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 "아버지"를 외치며 통곡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신안 증도에서는 섬 선교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의 흔적과 만난다. 증도는 탁월한 비경이 유명한 여행지로,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동행하는 세 번째 여정이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전도자였다. 1년에 고

무신 9개가 필요할 만큼 발품을 팔며 섬 전도에 힘썼고,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증도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소망 없는 문 전도사의 삶에 한 줄기 빛이었고, 그녀를 누구보다 열정적인 전도자로 이끌었다. 섬마을에 세워지는 교회들도 모두 기도를 통한 믿음의 승리였다. 문 전도사는 6·25 이후 공산당원들의 교인 학살 만행으로 순교했다. 증도에는 그녀를 기리는 순교 기념관, 기념비 등이 지금도 잘 보존돼 있다. <한국순례기>에서는 조선의 사도바울들도 만날 수 있다. 강화도에는 김상임 전도사가 있었다. 강화도 기독교 역사는 구한말, 개항 초기 인천항으로 들어온 감리교와 성공회를 통해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강화도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은 그저 침략자로 인식되던 시기였다. 김상임 전도사는 복음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기독교를 핍박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핍박으

로 인해 이웃이 선상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심령에 큰 변화를 맞았다. 그는 45세에 존스(G. H. Jones)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된 후, 자기 집 앞마당에 열두 칸짜리 예배당을 지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곳이 교산교회다. 양반이자 유학자요, 마을의 스승과 같았던 그의 회심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 여파는 강화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한국순례기>는 이외에도 역사 속에서 잊혀가는 믿음의 선조들을 마주한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오랜 유교적 삶을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위해 밀알이 되고, 옥중에서도 혹은 굶이굶이 산을 넘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자들이다. 국내 곳곳 아웃리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여름, CGNIV <한국순례기>와 함께 아름다운 한반도의 풍경을 거닐며, 길을 낸 사람들의 순전한 열정에 다시 한 번 주목해보면 어떨까. ■ 방송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사명감으로 시작한 제작진의 순례기

시작.

〈한국순례기〉는 제작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순례기였다. 기획의 시작은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여행과 자연을 담은 슬로 콘텐츠’였다.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국내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보는 순례로 생각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자문단들을 통해 유적지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작진은 그 이야기 속, 사람들에게 마음이 갔다. 기행과 함께 우리가 되 새겨야 할 그 사람들을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에 현존하는 기독교 유적지나 남아있는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자료는 대부분 외국인 선교사들에 관한 것이다. 반면 정작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퍼트린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는 드물다. 이에 〈한국순례기〉는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을 찾는 순례로 제작의 방향을 전환했다.

제작.

올 1월부터 본격적인 자료조사에 들어갔다. 먼저 한국의 비경과 전국 각지의 기독교 관련 유적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지역별로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을 조사했다. 그중 지금도 장소나 흔적이 남아있고, 또 그들에 대해 증언해 줄 분들이 계신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12편의 순례지를 선정했다. 인

물들이 국내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됐다.

촬영은 자료조사를 병행하며 올 3월부터 시작했다. 몸소 그 길을 걸어 갈 순례자로 배우 서태화(1, 4, 7, 10편 출연), 사진작가 이요셉(2, 5, 8, 11편 출연), 플루티스트 송솔나무(3, 6, 9, 12편 출연)가 함께했다. 각자 다른 유적지로 떠나는 세 사람은 저마다의 색깔로 여행을 이끌었다. 배우인 서태화 씨는 명확한 전달력으로 순례지를 충실하게 소개해주었다. 이요셉 작가는 누구보다 여행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연주자인 송솔나무 씨는 프롤로그와 프로그램 말미에 연주로 분위기를 더했다. 순례지 저마다 의미가 깊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낳은 결과들이 체감됐다. 특히 강경, 증도, 강화 등은 그 시대 유적지들이 더욱 잘 보존돼 있었다. 아픔의 역사기도 하지만, 강경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도 많았고, 일본식 가옥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증도나 강화는 이미 순례지로 유명한 곳이다.

바람.

〈한국순례기〉는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는 거대한 사역의 시작이다. 그만큼 세상에 내놓기까지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선조들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도 좀 더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이분들의 역사나 행적, 흔적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이런 부분의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일에 이 프로그램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





함께하는 웃음, 더 깊은 메시지

〈나침반 플러스 시즌2 - 믿음〉으로 찾아온 개그맨 이흥렬

개그맨 이흥렬이 토크 프로그램으로 우리 곁을 찾아왔다. 〈나침반 플러스 시즌2 - 믿음〉 진행자로, 교회 생활과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내심 궁금했던 의문들을 유쾌한 수다로 풀어나간다. “쉽고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방송 생활 40여 년 경력의 그는 먼저 시청자들의 기대에 주파수를 맞췄다. 특히 〈나침반 플러스 시즌2 - 믿음〉에선, 초신자 혹은 비기독교인 시청자들을 가장 염두에 두었다.

“보다 보니 재밌네.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누군가의 반응이 이 프로그램을 맡은 그의 가장 큰 바람이자 깊은 속내다. 두 번째 녹화 현장에서 만난 그는 출연자들과 한층 친숙해진 가운데, 성경적 답변들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시청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국내 원맨 토크쇼의 선두주자답게 유쾌한 입담, 깔끔한 진행도 여전했다.

“시청자의 마음으로”

〈나침반 플러스 시즌2 - 믿음〉 시리즈가 지난 5월 18일 서울 양재동 한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녹화를 진행했다. 1화 ‘크리스천답게 살기’ 편에 이어, 2화 ‘변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3화 ‘하나님께로 가는 직진로, 기도’ 편이 연이어 진행되는 자리였다. 고정 출연자인 방선기 목사, 고적한 선교사, 신장주 목사와 스페셜 게스트인 〈아근하는 당신에게〉의 저자 이정규 목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진행자 이흥렬은 출연자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며 현장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다. 제작진들과도 스스럼없이 보였

다. PD와는 2012년 〈편편한 북카페〉를 함께한 뒤 꾸준히 안부를 나눴은 사이기도 하다.

이흥렬의 생동감 있는 오프닝으로 녹화가 시작됐다. 이미 2회분 호흡을 맞춘 이흥렬과 출연자들은 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금식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시는지, 통성기도는 왜 하는지 등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궁금증들을 조목조목 짚어갔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네 패널들의 명쾌한 성경적 답변들도 풍성하게 오갔다. 이흥렬은 초신자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고, 자신의 이야기도 더하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 40여 년간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돌려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은 오랜 시간 말씀을 연구한 분들이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다 쉽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재미있게 다가가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노방전 도라는 말도 어려워하는 분들 많거든요. 또 초신자일수록 궁금한 것이 많은데 쉽게 물어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삶이 곧 기도”

실제 그는 “절박할 때 기도가 잘 나오는 것 같다”는 대목에서 그의 솔직한 의문을 비추기도 했다. 기도는 절박할 때 어려웠다는 말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힘겨웠다. 기도도 쉬이 나오지 않았다. 의학에서 이미 손을 뗀 어머니를 그저 여러 치유현장으로 업고 다닐 뿐이었다.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의 사연은 간절함으로 드리는 또 다른 기도의 예를 보여주었다. 교회의 도움으로 부모님들의 장례까지 상황들이 감사하게 정리되는 것들을 보며 그는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됐다.

그에게는 방송에선 미처 나누지 못했던 실제적인 이야기거리들도 많았다. 그는 자녀들에게 보다 철저히 식사 기도를 가르쳤다.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드물어지고 엄마는 늘 뒤늦게 홀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에 생각보다 식사 기도에 소홀한 신자들이 많은데,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실생활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더욱 감사가 넘쳤다”고 전했다.

“크리스천답게”

최근 그는 자주 강의를 나간다. 개그맨으로서 즐겁게 사는 법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지만, 그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꼭 전하는 인사가 있다. “지난 40여 년간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돌려드려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제가 크리스천인데, 여러분 하시는 일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꼭 기도드리겠다”는 것. 참석자 중에는 이 말을 듣고 다시 강의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 감사했다고.

그에게 크리스천답게 살기란 뒷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신자라고 말하고 다니기에 앞서,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바르게 살고, 비상식적인 일 안 하고, 나눔과 봉사를 열심히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그는 그럴 때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이 더욱 값지게 드러난다고 믿는다.

어느덧 60대 중반인 그에게 한결같은 유머의 비결을 물었다. 그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함께 유쾌하길 원한다. CGNTV에 6년여 만에 출연하는 이홍렬이 더욱 반가운 이유다.



제2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자화상을, 다시 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인지라
목사는 성도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을 보는 내내 아픈 가슴으로 화면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 농촌 개척 목회를 하며 엄마 없는 아이들 헤아리려고 난방 한번 하지 않고 지냈지만, 정작 제 딸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던, 부족한 저의 자화상이 보였습니다.”

제2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의 일부다. 수상자는 경남 함안에서 10년째 농촌 목회 사역 중인 동서비전교회 김일연 목사다. “CGNTV에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는 그는 CGNTV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KNOCK 미니휴먼다큐 <리틀 함아니스트>에 출연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고향교회 패밀리>를 계기로 CGNTV를 만났다. 촬영 후 안테나를 설치받고 교회의 예배, 말씀, 찬양이 풍성해졌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TV에 나온 자신들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큰 낙이 됐다. 교회에 손자를 데리러 왔다가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계기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도 있다. 김 목사는 누가 알까 싶은 먼 거리를 찾아온 CGNTV를 통해 한 영혼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

CGNTV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은 김 목사가 그 인연으로 보게 된 프로그램이다. 자신과 겹쳐지는 드라마를 보며 자신과 가족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순간을 마주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CGNTV 콘텐츠. 그 스토리를 담은 김일연 목사의 시청수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대상 수상자 김일연 목사(동서비전교회)

김일연 목사의 시청수기 중에서

저의 1순위는 늘 우리 교회 출석하는 엄마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생들에게 다 주는 장학금도 우리 딸은 제외시켰습니다. 설날, 부활절, 어린이날,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지원하는 용돈도 목사 딸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심지어 제 딸에겐 편지도 없었습니다. 극 중 화난 보라의 모습을 보며 우리 딸 진희가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만 사랑하는 남의 아빠가 된 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딸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했던 부족한 아버지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만 사랑하다가 천국으로 가신 아버지, 그리고 그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비뚤어진 보라의 모습도 측은하고, 좀 더 보라를 헤아려주고도 싶었습니다.

주일 저녁, 자취방으로 돌아갈 준비 중인 딸아이 방에 들어가 다가올 생일을 미리 축하하며 처음으로 용돈 3만 원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개척 목회하는 제게는 가진 전부를 준 것이었습니다. 치매로 아픈 보라 어머니를 볼 땐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저의 개척 목회를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아픈 몸으로 청소, 설거지, 심지어 할머니들의 온몸을 씻기며 일합니다. 또 심신이 탈진되어도 손수 주일 점심을 준비합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주일 식사 후엔 설거지도 하고 아내의 뭉친 어깨도 주물러주었습니다.

보라와 수숫대 우거진 들길을 걷던 창우 전도사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만 있어도 앞뒤 안 가리고 가겠다는 마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인지라 목사는 성도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황금 들판과 높은 산을 훌쩍 넘는 마지막 드론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태산도 뛰어넘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솟아올라 힘차게 날 수 있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 김일연 목사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드라마 <다시 봄>의 보라 아버지, 최봉길 목사



웃음소리

신미식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랑을 배운다>, <천국의 땅, 에티오피아>외 다수

당신의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CGNTV 콘텐츠로 전하는 소중한 마음



더 멀리

선교지에 있는 당신에게 p18 <말씀강해 & 예배>, <나침반 바이블>
예수를 모르는 당신에게 p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더 가까이

내일의 꿈, 어린이들에게 p22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이 좋아요>
교회와 멀어진 내 가족, 내 친구에게 p24 <KNOCK>

〈말씀강해 & 예배〉, 〈나침반 바이블〉

“CGNTV 예배 시간이 되면 가족 모두 옷을 갖춰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TV만 틀면 접할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의 가장 든든한 영적 공급처입니다.” _ 태국 송진호, 석영주 선교사



선교지와 나누는 영적 양식

CGNTV는 선교지를 품는 영적 공급처의 사명으로 시작됐다. 영적 양식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돼 지구촌 어떤 오지에서도 TV만 켜면, 고국의 예배, 풀송이 같은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 CGNTV의 예배 프로그램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구촌 어디에서든 고국의 생생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 시차와 관계없이 예배시간이면 꼭 참여한다는 분들도 많다.

예배 설교 이외에도 말씀강해는 선교지의 영적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준다. 국내외 탁월한 목회자들의 다양한 설교들이 말 그대로 말씀의 상찬처럼 펼쳐져 마음껏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다. 말씀강해는 다국어 방송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나침반 바이블〉은 성경의 각 권 혹은 한 주제를 강의 형식으로 여러 회 차에 걸쳐 깊이 있게 소개한다. 책 한 권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선교지에서, 저자의 육성을 TV를 통해 만나는 것. 또 요일에 따라 매주 구약, 신약 강의를 함께 진행돼 보다 다양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



1. 구약 '사사기' 강의
생명의빛 광성교회 이준태 목사
2. 신약 '고린도전서' 강의
동춘제일교회 장성운 목사

예배(LIVE)

- 새벽예배: 월-토 오전 5시 20분 ● 주일예배: 매주 오전 6시 50분, 9시, 11시 30분, 오후 1시 50분
- 열린새신자예배: 매 주일 오후 7시

말씀강해(국내/다국어)

- 국내 목회자
강준민, 권성수, 권준, 권혁빈, 김용훈, 김지철, 김창근, 김한요, 김형익, 김형준, 류응렬, 마크최, 박성근, 박성민, 박성일, 박완철, 박은조, 서정오, 양춘길, 유관재, 유기성, 이규현, 이동원, 이영호, 이웅조, 이인호, 이재철, 이재훈, 이주연, 임채영, 장덕순, 정갑신, 정현구, 조봉희, 지형은, 진재혁, 최경욱, 하용조, 한기채, 홍정길, 화중부 목사
- 해외 목회자
웨인 코테이로, 카일 아이들먼, 데이비드 플랫폼, 크레이그 그로셀, 브라이언 휴스턴, 존 파이버, 칩 잉그램, 맥스 루케이도

나침반 바이블

〈구약 - 사사기〉

강사 : 이준태 목사(생명의빛 광성교회 담임)
본방 수요일 오전 8시 20분
재방 월요일 오전 11시

〈신약 - 고린도전서〉

강사 : 장성운 목사(동춘제일교회 담임)
본방 목요일 오전 8시 20분
재방 화요일 오전 11시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한 영혼을 위한 향기 & 음악

“10년 넘게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동료에게”

예수를 모르는 나의 한 영혼에게 ‘하늘빛향기’ 그리고 ‘스윗사운즈’를 선사해보면 어떨까. 예수로 인한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 울림 있는 음악들이 그들의 가슴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표인봉과 윤유선 그리고 김영우. 우리에게 친숙한 각 프로그램 MC들을 통해 그 향기와 사운드의 진가를 들어봤다.

-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방송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
-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방송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40분

히스토리로 말하는.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는 진정 하늘빛향기로 가득하다. 2005년 〈박나림의 하늘빛향기〉로 시작해 강석우, (故)김자옥 등의 진행자들을 거치며 무려 10년이 훌쩍 넘도록 매주 향기 가득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왔다. 총 회 차만 668회에 달한다(6월 말 기준). 주로 스포츠, 문화, 예술계 크리스천들을 초청했던 초창기에는 유명인들의 삶과 신앙이 새로움을 더하며 눈길을 끌었다. 중반부부터는 선교지와 교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들로 초대의 폭이 넓어지면서, 더욱 깊고 진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김영우의 스윗사운즈〉는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유일한 크리스천 음악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콘셉트로, 다양한 색

깔의 진정성 있는 음악들이 매주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100회를 넘어섰다.

진행자들이 경험한.

현 진행자인 표인봉과 윤유선은 “〈하늘빛향기〉는 한 명의 삶을 들여다보고 간증을 듣게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MC로 새롭게 투입된 표인봉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 회 감동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장수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다년간 MC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유선은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 등 주변의 삶에만 익숙한데, 〈하늘빛향기〉에서는 수많은 인생들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선교사님들 편이 좋다는 그녀는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돌아보게 된다”고 고백했다.

김영우는 “지금껏 이토록 오래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처음”이라며 “〈스윗사운즈〉로 오랫동안 시청자들과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스윗사운즈〉는 제작진의 헌신이 있어 하나님이 더욱 흡족하게 바라보실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작으로 엿보는.

각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그 값진 향기와 소리를 맛볼 스페셜 편을 추천받았다.

표인봉이 꼽은 회차는 ▶ 315회 이요셉 목사(양떼 커뮤니티) 편, ‘밤거리를 복음으로 밝히다!’이다. 그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대하는 이요셉 목사의 실천적이고 실존적인 삶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복음화 사역을 통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노력과 사랑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전했다.

윤유선이 꼽은 회차는 ▶ 293회 아마존 김철기 선교사 편, ‘아마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다’이다. 그녀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충격을 이겨내며 아마존 인디오 부족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는 선교사님 부부를 보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느꼈다”고 했다.

〈스윗사운즈〉 김영우는 ▶ 1회, 100회 가수 박기영 편을 꼽았다. 매회 그 무대만의 스윗사운즈가 있지만, 기념이 되는 회 차마다 가수 박기영이 함께했다. 100회 특집에서는 박기영이 잠시 MC를 자처해 김영우를 인터뷰했고,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00회 특집으로 함께한 김영우(오른쪽)와 그의 오랜 친구 가수 박기영



어린이의 좋은 친구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조카와 언니에게”

〈나는야 주의 어린이〉(이하 나주어)와 〈예수님이 좋아요〉(이하 예조)는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콘텐츠다. 〈나주어〉는 ‘TV로 만나는 주일학교’, 〈예조〉는 ‘국내 대표 어린이 큐티 프로그램’이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차세대 신앙교육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는 이 두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나주어〉는 실제 주일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이 알차게 구성돼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부족한 국내 미자립 교회나 해외 선교지에선 더욱 유용하다. ▶ 믿음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출동! 믿음 탐험대’ ▶ 애니메이션을 통해 성경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성경 애니메이션’ ▶ 래퍼 휘타와 흥겨운 리듬에 맞춰 말씀을 외워보는 ‘휘타와 챌트 GO’ ▶ 성경 속 인물을 한 사람씩 알아가는 ‘WHO WHO 바이블 피플’ ▶ 신앙의 본이 되는 친구를 소개하는 ‘주어 TV’ 등이 있다.

〈예조〉는 CGNTV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명실상부 국내 대표 어린이 큐티 프로그램이다. 성경 본문에 따라 인형극과 그림 동화 형식으로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며, 말씀을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광, 성병숙 등 국내 내로라하는 성우들이 초창기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연기하며 프로그램의 친근함과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예조〉는 아랍어 자막으로도 방송되고 있다.

■ 〈나는야 주의 어린이〉 방송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 〈예수님이 좋아요〉 방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나는야 주의 어린이〉를 보고...

태국에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좋은 기독교 콘텐츠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나는야 주의 어린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국 콘퀸에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현지에 있는 어린이들과 예배를 열정적으로 같이 드리지만 정작 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야 주의 어린이〉를 통해 아이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 암송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예수님이 좋아요〉를 보고...

〈예수님이 좋아요〉에서 나온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특하고, 함께 기도해주게 되고, 격려해주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예수님이 좋아요〉였습니다.

-김현정 집사

〈인터뷰 - KNOCK 황지수 PD〉

차세대가 공유하는 짧지만 깊은 감동

“기독교에 대해 무조건 거부감부터 갖는 20년지기 친구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선함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아버지께”



CGNTV가 제작하는 KNOCK가 크리스천 모바일 영상콘텐츠의 보고가 되고 있다. 러닝타임 5분을 넘지 않는 웃음과 감동의 영상들이 새로움을 더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웹페스트' 등 여러 수상 소식도 이어지며 작품성까지 입증되고 있다. 타깃 층인 10, 20대의 관심도 높다. "이런 사람들 보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 이거 여러 번 봤어" 등 초신자, 비기독교인들의 댓글도 눈에 띈다. 모바일 시대, KNOCK의 미니휴먼다큐를 당신의 가족, 친구에게 권해보면 어떨까. KNOCK팀 팀장 황지수 PD에게 KNOCK와 '미니휴먼다큐'에 관해 들어봤다.



전문 기독교 모바일 영상콘텐츠 제작팀이 생겨 반갑다. KNOCK는 어떻게 시작됐나.

- 2013년 말 CGNTV에서 모바일이나 SNS에 적합한 차세대 콘텐츠를 구상하면서 시작됐다. 파일럿 형태로 기획, 제작되다 2015년 KNOCK라는 프로그램명이 생겨 러닝타임 5분 이내의 장르 불문한 콘텐츠를 페이스북 'CGNTV Korea' 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당시 첫 작품이 폐지 줍는 은퇴목회자를 담은, 미니휴먼다큐 〈충성된 종〉이었다. 현재의 'KNOCK'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6년 1월에 생겼다.

KNOCK라는 브랜드 네임 혹은 팀명이 새롭다. KNOCK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 노크는 '두드린다'라는 뜻에서 착안했다. 차세대이면서 초신자이거나 비신자들에게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열린다'가 아니라 '두드린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미니휴먼다큐', 미니시트콤 형태의 '웹드라마', 말씀 콘텐츠 '퍼즈', '퍼즈 스토리', 뮤직 영상 '리플레이'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 대상층인 10, 20대들의 방문이 가장 활발하다.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한 것은 효과적인가.

- 페이스북은 비신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구조다. 일단 크리스천들이 '좋아요'나 '공유'를 누르게 되면, 그들의 관계망을 따라 영상이 쉽게 확산된다. 댓글을 봐도, 초신자, 비신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초반 CGNTV 크로스미디어팀의 페이스북, 유튜브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작에 큰 도움을 얻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들이 더 공개되나.

- 노숙인들을 위해 지난 3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수원역을 방문한 청년 커플의 이야기가 있다(〈수원역 브이로그〉, 6월 30일 퍼블리싱). 신학생이었던 두 사람이, 만난 지 500일을 맞아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뜻으로 노숙인들에게 핫팩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됐다. 1월부터 약 5개월간 촬영했다. 이 외에도 현재 시놉시스 공모전이 진행 중인데 좋은 수상작이 나오면 드라마 제작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역 브이로그〉 제작 기간이 꽤 길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 다 이만큼 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CGNTV는 작품의 진실성을 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인터뷰를 통해 나온 영상을 담기 위해선 시간이 걸려도 진행한다. 이는 믿고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복음의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이 출연했다.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 현재 열 분 정도 소개됐는데, 다방면으로 알아본다.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검증된 분의 소개나 추천이다. 그간 선행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소개됐는데, 주인공들은 무엇을 하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 다큐를 찍을 때 꼭 생각하는 두 가지 원칙이 ‘지속성’과 ‘진실성’인데, 현재 제작 중인 〈수원역 브이로그〉가 그렇다. 진실성 충만하게 복음을 전해도 지속성이 약한 경우도 많은데, 형제가 군대에 갔던 시기에도 자매 혼자 꾸준히 그 일을 이어갈 만큼 진실하고 신실하다. 20대인 그들의 끈기와 독심, 순수함이 도전이 되고 보기 좋았다. 구미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는 부부 편도 두 분이 실제 누나와 형 같아 좋았고, 노크 페이지 오픈됐을 때 처음 올라간 〈잃은 양 찾기〉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 업로드 후 금세 100만 명이 봐 잊지 못할 작품이다.

가장 조회 수가 높은 작품은 무엇이었나.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다면.

- 〈I am 썸〉이 645만 회, 〈현목이의 미니멀라이프〉가 437만 회 이상이다. “이런 사람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등의 댓글들을 보면 전율이 느껴지고, “보고 또 봤다” 등의 반응은 영상제작자로서 정말 뿌듯하다.

KNOCK를 제작하시면서 가장 감사한 점이 있다면.

-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 제작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고, 노크의 방향성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는 여러 리더십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콘텐츠들이 하나둘 쌓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등의

댓글들을 보면 전율이 느껴지고,

“보고 또 봤다” 등의

반응은 영상제작자로서 정말 뿌듯하다.

CGNTV 해외뉴스

CGNTV 중문대 개국 10주년 감사예배

중화권 미디어선교에 힘써 온 CGNTV 중문대가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지난 6월 22일(금) 오후 6시 1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우다인 호텔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현지 목회자인 황푸귀 목사(말씀의 샘, 청춘 반짝반짝 출연)의 사회로, 짱편화 목사(대만 CGNTV 이사장)가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1503장로합창단의 특별순서, CGNTV 이용경 대표의 감사 인사 등이 진행됐다.

짱편화 목사는 말씀을 통해 “CGNTV 중문대 10년의 역사는 은혜의 산물”이라며 “대만만을 위한 방송이 아닌 전 세계 중화권을 위한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만 가수 하오평성의 축하공연, 대만 목회자 및 단체장들의 축하 인사 등도 이어졌다. 진리당 피터양 담임목사는 “CGNTV는 선교하는 방송”이라며 “10년 동안 열심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굿티비 대표 증귀성 장로는 “중화권 미디어 선교에 CGNTV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감사예배 하루 전인 지난 6월 21일(목) 하워드 플라자 호



▲ 대만 CGNTV 이사장 짱편화 목사



▲ 행사에 참여한 대만교회 사역자들

텔에서는 중문대 10주년에 발맞춰 ‘VISION NIGHT’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운영위원회가 진행됐다. CGNTV 운영위 리더십 그룹을 포함한 해외 지사 리더십, 대만 후원회 및 협력자 60여 명이 참석해 지사별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운영위원회의 비전 등을 나눴다.



▲ 중문대 10주년 행사를 섬긴 CGNTV 스태프

CGNTV 해외뉴스



미주 CGNTV 다큐영화 <서서평>, 플러신학교서 상영회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상영 및 간담회가 지난 5월 말 미국 플러신학교에서 진행됐다. 크리스틴 김, 조은아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신학자 및 신학생 80여 명과 함께 영화에 대한 소감과 서서평 선교사의 삶에 대한 신학적, 선교학적 의미를 짚어봤다. 행사에 참여한 조은아 교수는 "(이 영화가) 진정한 성공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며 "서서평 선교사는 의료와 교육분야에 헌신함으로 그 시대의 진실된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크리스틴 김 교수 역시 "한 선교사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았다"며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보여주는 의미를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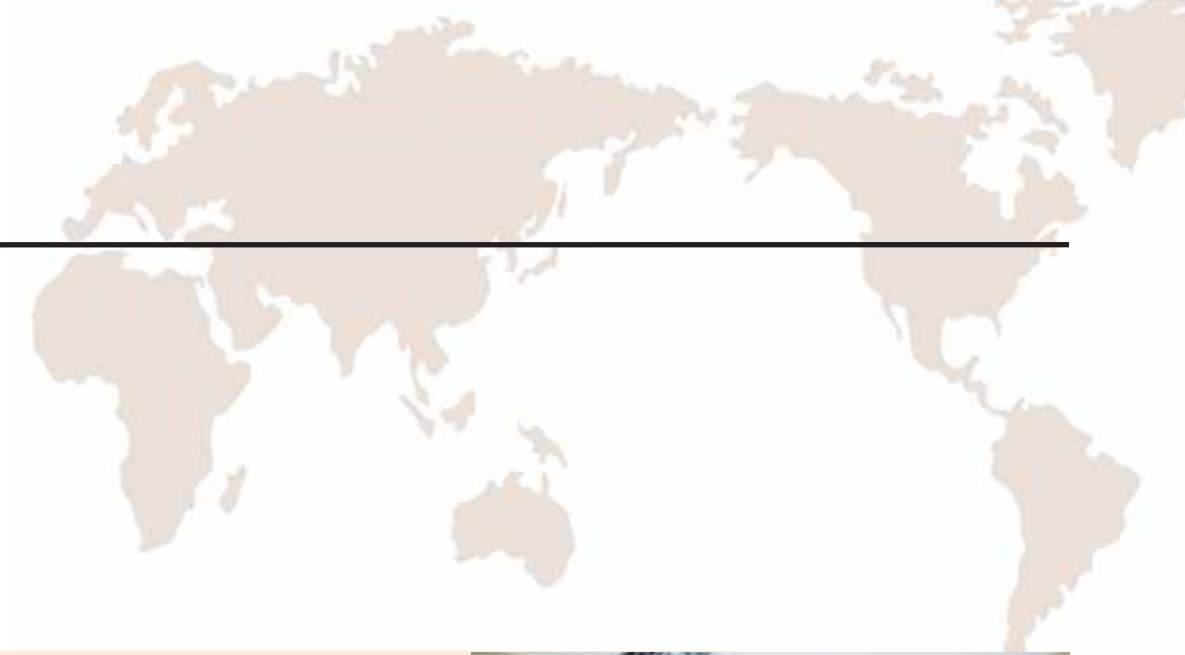
일본 CGNTV 특별 좌담회 <일본에서 세계로...>

일본 CGNTV에서는 <일본에서 세계로 - 길, 진리, 생명>이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제작, 방영했다. 인도네시아, 우간다, 탄자니아, 태국을 섬기는 4명의 일본인 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 사역 스토리를 전했다. 지난 5월 말 방영돼 국내외 본격적인 여름 사역에 앞서 선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네 출연자는 섬기는 나라, 경험 등이 모두 다르지만 "영혼에 국경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이 대표적인 복음의 불모지인 만큼, 세계 각국으로 향한 그들의 헌신은 선교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를 더해 주었다.



인도네시아 CGNTV 현지인 자문위원회 발족

인도네시아 현지인 자문위원회가 발족됐다. 2015년 한인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발족된 지 3년여 만에 현지인 리더십들까지 CGNTV와 동역하게 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인도네시아 교계를 대표하는 10명의 리더십들로 구성됐다. 이에 인도네시아 CGNTV는 지난 4월 7일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에서 위촉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CGNTV 이용경 대표를 비롯해 40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동역을 축하했고, 웨슬리대학교 학생들의 특별 찬양도 진행됐다. 현지인 자문위원들은 향후 정기모임을 통해 CGNTV를 이해하며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 함께 될 예정이다.



아랍 CGNTV 이집트서 '미디어 아카데미' 개최

이집트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가 지난 4월 17일 ~1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됐다. 아랍 CGNTV가 주관한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한인 선교사 대상 '미디어 커뮤니케이터스 콘퍼런스'에서 현지인 사역자, 관심 있는 청소년들까지 대상이 확대된 형태다. 특히 아랍 CGNTV와 MOU를 맺은 반석미니스트리(이집트 현지 기독교TV 프로그램 제작) 사역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모바일 콘텐츠 제작의 이해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총 6개의 강의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며 진행됐다. 한편 아랍 CGNTV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오는 7월, 이집트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집트 현지 미디어 아카데미 대표 강사로 초청돼 계속해서 중동 복음화를 위한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을 계획이다.



태국 CGNTV TED TALKS <SHARE> 제작

태국 CGNTV는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TALKS' 프로그램 <SHARE>를 제작한다. 'Share to Change'를 모토로, 매주 수요일 분야별 크리스천 전문가 4인이 모여 자신들의 전문 지식 및 경험 등을 소개한다. 폭넓은 시청을 위해 태국 CGNTV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태국 CBMC(태국기독교실업인협회) 공동 프로젝트인 이번 프로그램은 제작비 전액을 CBMC에서 후원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태국 CGNTV는 "크리스천 1% 미만 복음의 불모지 태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SHARE 강연자들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사랑이 태국 전역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GNTV 국내뉴스



직원 아웃리치

CGNTV 직원들이 올여름에도 '고향교회 섬김', '미디어 아카데미' 사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아웃리치를 떠난다. 첫 시작은 충북 '충주전원교회' 섬김(6월 27일~7월 1일). 총 70여 명이 참석해 감자 수확 사역 및 미용, 마을 잔치 등 지역 주민 섬김을 실천한다.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내 지역 교회 미디어 아카데미 사역이 강원도 '강릉중앙교회'에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60여 명의 CGNTV 부서별 직원들이 영상제작 및 편집, 방송시스템, 스피치, 디자인 등 교회 미디어 사역을 위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한다. 해외 미디어 아카데미 사역은 대만 타이중과 태국 방콕에서 각각 7월 15일~21일, 8월 21일~27일 진행된다.



서서평 ICFF 최우수상 수상

CGNTV가 제작한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지난 5월 5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ICFF(International Christian Film Festival) 국제기독교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ICFF는 2018년 총 출품작수 671편으로 역대 최대 출품을 기록했다. 다큐멘터리 부문 총 117편 출품작 중 한국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결선 12편에 진출했으며, 그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영화는 작년 4월 26일 국내에서 개봉하여 12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해 역대 한국 기독교 다큐영화 흥행 2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일부 미주지역에서도 개봉하여 2만 여명의 누적관객수를 기록했다.



CGNTV, 한동대학교 산학협력

CGNTV가 한동대학교와 상반기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언론정보문화학부 장규열 교수의 '광고홍보미디어플래닝' 수강생들이 2018년 1학기 동안 CGNTV가 제시한 주제에 따라 최종 기획안을 발표했다. 한동대는 전문성을 높인 수업을 진행하고, CGNTV는 시청자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20대 크리스천의 CGNTV 콘텐츠 시청 유입을 위한 전략 제안'이었다. 학생들은 CGNTV 임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초 최종 발표를 진행했고, 5개 조로 나뉘어 유튜브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전략들을 발표했다.

한강중학교 미디어 워크숍

CGNTV가 지역 섬김의 일환으로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 방송반 17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워크숍을 진행했다. CGNTV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4월 25, 26일 이틀 간 매일 세 시간씩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의 기획과 구성, 보이스 트레이닝, 카메라의 이해 등을 강의했다. 이론과 실습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방송 기술을 접한 방송부 학생들은 워크숍에 큰 만족을 표현하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CGNTV는 '서빙고 벽화 나눔', '미디어 워크숍' 등 지역 섬김 실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초 용산구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제2회 시청수기 공모전 시상식

제2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5월 4일 금요일 CGNTV 본사에서 진행됐다. 개국 13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CGNTV를 통한 다양한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들이 줄을 이었다. 총 20여 명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김일연 목사(대상), 계태화(최우수상), 이두나(우수상), 허유리(우수상) 수상자가 시상식에 참석했다. CGNTV 특집단막 드라마 <다시 봄> 시청 수기로 대상을 수상한 김일연 목사는 실제 작품 속 인물과 같은 농촌 개척 목회자로, 시상식 당일 진정성 있는 간증으로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다.



'한 영혼을 위한' CGNTV 전 직원 영성수련회

CGNTV 전 직원 영성수련회가 지난 4월 27~28일 양일간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열렸다. 사도행전의 한 구절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를 주제로, 나의 한 영혼에게 소개하고 싶은 CGNTV 콘텐츠 나누기,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등 CGNTV의 비전과 가치를 되새기고 직원간의 화합을 더하는 다양한 순서들이 진행됐다. 저녁 집회에는 예수향남교회의 정갑신 목사가 '집을 떠나 몸으로 만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풍성한 찬양과 중보기도로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졌다.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세븐블레싱 (영어자막) 05:4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10 KNOCK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6:4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20 하용조 목사의 세븐블레싱(영어자막) 08:00 CGN 투데이 08: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6:4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2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00 CGN 투데이 08: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08:5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한국순례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4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08:00 CGN 투데이 08:20 나침반 바이블 11:00 나침반 플러스 11:3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하용조 목사의 세븐블레싱 (영어자막) 06:4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07: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00 CGN 투데이 08:20 나침반 바이블 10: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06:4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2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8:00 CGN 투데이 08:20 나침반 플러스 08:5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6:4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침반 바이블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나침반 플러스 10: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0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00 나침반 바이블 16:3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말씀]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17:30 예수님이 좋아요 17:50 한국순례기	12:3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7:30 예수님이 좋아요 17: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13: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말씀] 박성일 목사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17:30 예수님이 좋아요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말씀] 최경욱 목사(LA또감사교회) 17:30 예수님이 좋아요 17:50 한국순례기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뉴욕IN2) 13: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말씀] 김용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 17:3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8:30 CGN 투데이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4:50 KNOCK 15:00 나침반 바이블 16: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7:2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8:20 신앙생활 연구소 유턴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한국순례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20:10 백소영 교수의 크리스천 문화읽기 21:0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컨퍼런스] 성경이 답하는 결혼과 동성애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9:3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20:10 기독교청년을 위한 미로찾기 컨퍼런스 21:00 [말씀] 김형익 목사(벧살롬교회)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카일 아이들먼의 극복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홀 애듀케이션 컨퍼런스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40 한국순례기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형익 목사(벧살롬교회) 19: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0:10 김남준 목사의 관계회복서 <가족> 21:0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3: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유기성 목사의 예수님과 동행일기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칩 잉그램의 증거하는 삶 00:20 생명의 삶	18:00 하용조 목사의 세븐블레싱 (영어자막) 18:40 유기성 목사의 예수님과 동행일기 20:0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20: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20 한국순례기 22: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크레이그 그로웰의 사탄이 공격할 때 00:20 생명의 삶

예기치 않은 선교

홍콩에 선교 관련 일로 출장을 갔을 때였다. 한 기독교 선교방송 매체를 방문하게 됐는데, 관계자들이 나를 한껏 따뜻하게 환대해주었다. 그리고 매우 설레고 흥분된 모습으로 그곳에서 송출한 나의 <깊이 읽는 주기도문> 텔레비전 강연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소개해주었다. 편지와 이메일, 그리고 SNS를 통해 올라온 글 등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그 선교방송국은 홍콩의 음영사단천지텔레비전 방송국으로, 120여 명의 직원들이 설교·문화예술다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홍콩은 물론 중국 대륙과 동남아 화교권 등 약 6백만 가구에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 그날, 나는 방송 선교의 능력과 효과가 보다 피부로 와닿았다. 물론 방송 선교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나 고충과 보람을 듣고 비전을 나누다 보니, 그 사역이 훨씬 감격스러웠다. 또 CGNTV와의 사역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깊이 읽는 주기도문> 강연은 몇 해 전 CGNTV와 함께 녹화하여 방영한 자료를 보내준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 감회가 깊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일평생을 바친다고 해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방송 선교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방송 매체를 통한 선교는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전파가 닿는 곳곳에서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때에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CGNTV와 손잡고 <김남준 목사의 관계회복서-가족>을 녹화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러한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선교해야 한다. 갈 수 있으면 가야하고, 직접 갈 수 없으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곳이면 방송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국경을 넘고 산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열방 중에서 못 듣는 사람들이 없도록.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우리의 허가 굳어지고 우리의 코에 호흡이 남아있고 혈관의 피가 식기 전까지...

열린교회 김남준 담임목사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김희준,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고미애, 고현준,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A, 김명철B, 김석인, 김희준,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정, 박이철, 박지수, 박찬규,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준희, 선우석, 성필호, 손재열,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훈,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영섭, 유익준, 유이상, 유주희,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유인,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밖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철원, 이춘희, 이학일,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순애, 장정심, 정상기,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지성한,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은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D-LIVE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D-LIVE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무선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 tv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SNS

- CGNTV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CGNTV Korea : www.facebook.com/cgntv
 - KNOCK(노크) : www.facebook.com/cgntv.knock